



사람

탤런트 장서희

## 삼천배 파워로 연기 UP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답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거야.”

‘인어아가씨’의 아리영, ‘아내의 유혹’의 은재를 통해 열연한 불자배우 장서희씨가 봉은사를 찾았다. ‘봉은사 중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회향법회’가 열린 8월 30일 봉은사는 발디딤틀 없이 북적였다. 천일기도를 마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회향을 보기 위해 강남 지역부터 성북과 성남 지역까지 2000명을 넘는 불자들이 경례를 가득 메웠다.



8월 30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회향법회에 참석한 장서희.

회향하는 명진 스님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다름 아닌 장서희씨. 장서희씨는 봉은사 신도로서 때때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 봉은사에서 3000배 정진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 우중에 치러진 회향식인 탓에 쌀쌀한 날씨에도 장서희씨는 1시간가량 일찍 나와 자리를 지켰다.

### “다 비우니 마음 편해” 사찰 순례하며 재충전

그동안 불교는 배우 장서희를 지탱하는 큰 힘이였다. ‘아내의 유혹’ 중 구근재로 참고 참았던 모습에서 도도하고 당당해지는 성격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해낸 연기력 근간에는 ‘불심’이 있었다.

‘아내의 유혹’ 제작에 들어가며 “다 비우니 마음이 편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어떤 연기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말한 그녀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공백 기간에 찾아오는 우울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 31세에 찾아온 ‘인어아가씨’ 주연 이후 ‘아내의 유혹’까지 장서희씨는 ‘회전목마’와 영화 ‘귀신이 산다’, 중국 드라마 활동 등으로 숨 가쁘게 내달려왔다. 중국 진출 후 5만여 팬들을 보유하는 등 중국 내 최고 한류스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백과 ‘인어아가씨’의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려움, 예능MC를 맡으며 쏟아진 갖은 루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장서희씨는 2007년에는 소속사를 옮긴 후 이런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1년간 어머니와 함께 전국 사찰을 순례하는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심신의 여유를 찾은 그녀는 결국 ‘아내의유혹’으로 연예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쉬는 동안 우울증도 있었는데 절에 다니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렸다. 연예인이란 종교를 갖는 게 심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장서희씨.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봉은사를 찾는다. 그녀의 새로운 행보가 불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모이게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선거모드 ‘청정·공명’ 열망

## “선거기간 짧아 검증 미비” 여론 속 후보군 속속 ‘출마 선언’ 전망

10월 22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에서 ‘청정선거’ 열망이 높다. 교계 각 단체에서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차기 총무원장의 자질과 정책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후보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준비성 훼손방지 등 선거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중앙총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 선거인단(각 교구본사 당 선거인단 10명)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번 선거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자질검증 자리 마련해야

교계 단체들은 정책토론회, 총무원장 후보 자질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명선거를 호소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 운영위원장 법승)가 설립한 불교지도자넷(www.choice33.net)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올 초부터 청정·공명·정책 선거 연중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한 캠페인 자료집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 원로의원 월서 스님, 前 중앙총

회의장 자승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출마를 예상했다. 불교지도자넷은 “후보자 검증과 정책 대결로써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후보자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벌일 것도 밝혔다.

청정승가불위대중결사의장 진오)도 9월 14~1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6~7월 사부대중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총무원장의 자질·정책·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분석 보고’를 발표한다. 또 한국불교기자협회 안직수 회장이 ‘기자가 바라본 종단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 발제할 예정이다.

무르익어가는 청정선거의 열기 속에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념)와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원학),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현보)가 9월 7일 열기로 한 정책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3대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3일 토론회 연기를 발표하며 향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3대승가대학 총동문회 정책토론회는 8월 31일 총동문회장단의 ‘순수한 애증심의 발로’라는 기자회견

이후 중앙총회 조선의원을 비롯한 스님들의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유력후보로 꼽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장)과의 정치적 연대 아니냐’는 의혹과 현 집행부 수석부장인 총무원장 원학 스님(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의 선거준비성 훼손 논란, 회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회장단 결의로 9월 2일 불참을 결정한 동국대 석림동문회의 발표까지 상당한 파장이 야기됐다.

다양한 분석은 역설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티끌 하나까지 ‘청정’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여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왜 후보 아닌 유력후보인가

선거공고와 후보확정 전 정책토론회 등을 여는 이유를 짚어보면 후보 등록 후 채 10일 밖에 되지 않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공정성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알 수 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 상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0일부터 3일간’으로 입후보자 자격심사 후 후보확정에서 선거당일까지는 그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법에 기준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예비후보제가 없기에 유력후보로서 각종 정책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밖

에 없다. 중앙총무기관 및 소속 종무원의 선거준비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에서 각 후보의 관여 기관 및 사조직 동원 금지, 선거공정제도 제도화 돼있지 않다.

한편, 교계 일부에서는 선거공영제 도입과 선거기간 연장, 권역별, 계층별 공청회 등의 목소리에 반해 지나친 사회법 적용은 종교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와 추대제 등도 주장하고 있다.

### #출마 예상 스님은?

총무원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서울 관음사 주지)은 9월 7일 유력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표를 던졌다.

종하 스님은 그동안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종하 스님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한 이유에는 원로의원들과 교구본사 스님들을 비롯한 종진 스님들의 광범위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후보 중 한 명인 평창 월정사 정념 스님도 20일 경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념 스님은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학 동문들과 백두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前 중앙총회 의장)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총회 의장으로서 화엄회 등 주요 정책모임의 지지를 받는 자승 스님은 현재 해외구호 활동과 청소년 포교사업 등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1998년 종단 개혁의 산물로 태어난 조계종 선거문화. 2007년 MBC PD수첩의 ‘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보도 등이 사회에 회자되며 불자들은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선거제도 속에 2009년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는 각 유력후보의 화두는 ‘당선’이 아닌 ‘청정’이어야 한다는 게 불자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새연재 .....

- ▶24 박재완의 불교사건이야기
- ▶28 원력과 신심의 현장

법구경  
지나친 집착과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의 길을 가서 홀로 기쁨을 찾았다.

현대불교 @ 샵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창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운주사  
02)3672-7181~5  
불교서적출판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엘레과일 두리야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대장경을 한눈에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9월 1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동국대학교 소장 대장경 특별전 ‘부처님 말씀 곳집’을 개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건학이념인 불교사상을 동국가족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동국대가 소장한 48종 대장경 가운데 28종이 전시됐으며, 전시 기간은 12일까지다. 사진은 개막식에서 이사장 정현 스님(오른쪽 두 번째)과 상임이사 성관 스님(맨 오른쪽), 법인사무처장 중성 스님(맨 왼쪽), 정각원장 법타 스님(왼쪽 세 번째), 오영교 총장(가운데), 신재호 도서관장(왼쪽 두 번째)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박재완 기자